

‘新명절’ 할러윈 특수에 유통가 ‘들썩’

대형마트들 ‘할러윈 페스티벌’...완구·간식 등 할인전 홈플러스 특집 강좌...이마트24 ‘MBTI’ 모바일 행사도



‘K-좀비’ 인기에 힘입어 서양 명절로 꼽혔던 할러윈 데이(10월31일)가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연령대에서 큰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유통가는 너 나 할 것 없이 관련 상품과 기획 행사를 앞다퉈 내놓았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할러윈 데이’를 맞아 어린이 전용관(키즈관)을 할러윈 분위기로 꾸미고 지하 1층 매장에서는 오는 31일까지 다양한 관련 상품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이곳 매장에서는 다양한 사랑과 초콜릿, 와플 등이 할러윈을 즐기려는 고객을 유혹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수백 가지 할러윈 데이 상품을 내놓고 할인전을 진행한다.

이마트는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할러윈 페스티벌’을 연다. 여기서는 지난해보다 30%가량 관련 상품을 늘려 총 200여 종을 선보인다.

과자와 사랑, 젤리 등 먹거리 60여 종과 원통 호박 바구니, 호박 의상, 할러윈 분위기 조명 등 140여 종의 생활용품이 포함된다.

행사 기간 이마트는 초콜릿과 사랑, 젤리 모든 품목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 3종을 제공한다. 1만원 이상 구매하면 10% 할인해주고, 2만원 이상 일 때는 20%, 3만원 이상 30% 할인한다.

어린이를 위한 망토와 가면 꾸러미 등은 행사카드로 사면 20% 할인받을 수 있다.

이마트가 최근 5년 동안 할러윈 기간 매출을 조사한 결과, 이마트에서 할러윈 상품을 구매하는 연령층 역시 30~40대를 넘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인 2018년 10월에는 할러윈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 중 30~40대 연령층 비중이 95.5%를 차지



19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캔디미’ 매장에서 직원이 ‘할러윈 데이’ 전용 간식들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했지만, 지난해 10월은 78.2%로 대폭 감소했다. 대신 50대, 60대 비중이 2018년에 비해 각각 4배, 7배가량 늘었다.

이마트에서의 할러윈 상품 매출은 매년 20% 이상 늘어나고 있다. 이달 들어 16일까지 할러윈 생활용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배가량 증가했다.

홈플러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신선편 등 먹거리와 파티용품 등을 기획 판매한다. 골과 사과 단감, 키위 등 과일을 사면 유령 얼굴 스티커를 주기도 한다.

초콜릿 등 할러윈 간식은 230여 종 선보인다. 전국 홈플러스 점포에서 할러윈 행사 상품 420여 종

을 2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5000원 상품권을 주고, 온라인에서는 마일리지 5000점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전국 홈플러스 문화센터 110개점은 쿠키 만들기, 동화 미술놀이, 잡류 공예 등 할러윈 특집 강좌를 곳곳에서 연다.

롯데마트는 할러윈 파티에서 즐길 수 있는 8가지 언어 상품을 20일부터 26일까지 최대 30% 할인한 가격에 내놓는다.

편의점 이마트24는 먹거리 한정 상품 6종을 선보이고 자신의 성격유형을 알아볼 수 있는 ‘MBTI’ 검사 모바일 행사도 이어간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삼성전자, 자개 ‘비스포크 슈드레서’ 선보여

‘케이스스터디’와 한정판 출시

삼성전자는 스니커즈 콘셉트 스토어 ‘케이스스터디’(Casestudy)와 협업해 ‘비스포크 슈드레서 X 케이스스터디’ 스페셜 에디션을 21일 한정판으로 출시한다.

이번에 출시하는 에디션은 신발관리기 본연의 역할뿐 아니라 개성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인테리어 가전, 취향 가전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협업은 ‘뉴트로’ 트렌드가 부상하며 MZ 소비자들이 ‘자개’ 디자인에 주목하는 것에 착안했다. 한국적인 전통 자개공예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색감을 만들어 내는 자개장과 같은 모습의 비스포크 슈드레서로 탄생시켰다.

비스포크 슈드레서 케이스스터디 에디션은 케이스스터디 청담점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전시·판매 예정이며, 가격은 149만원이다.

비스포크 슈드레서는 ▲냄새 입자를 말끔히 털

어내는 ‘에어워시’ ▲냄새 입자를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UV 냄새분해필터’ ▲영상 40도 이하로 건조해 주는 ‘저온 섬세 건조’ ▲각종 바이러스와 유해세균을 효과적으로 살균해 주는 ‘제논(Xenon) UVC 램프’ 등을 탑재해 탈취·건조·살균 과정을 통해 신발을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주는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영화관·호텔·골프장 등 다양한 일상 접점에 비스포크 슈드레서 체험존을 마련해왔으며, 이번 협업을 통해 스니커즈에 관심이 많은 MZ 소비자들에게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스니커즈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비스포크 슈드레서를 통해 신발을 관리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케이스스터디와 협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비스포크 슈드레서를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체들과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벤츠코리아, 테일러메이드와 골프 컬렉션 출시

11월 30일까지 구매 고객 사은 행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골프 브랜드 테일러메이드와 협업해 ‘2022 FW 시즌 메르세데스-벤츠 골프 컬렉션(사진)’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업 제품은 남성·여성용 스웨터, 귀마개, 넥워머, 양면 담요, 겨울용 모자 및 골프백 등으로, 벤츠의 고급스러운 품격과 테일러메이드 특유의 디자인 감각을 절묘하게 조합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벤츠코리아는 2019년부터 테일러메이드와 꾸준한 협업으로 매년 2회 골프용품 및 의류 신제품

을 출시하고 있다. 이번 신제품 이외 지난 3년간 출시한 100여종의 협업 제품들은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 내 ‘액세서리&컬렉션 샵’과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테일러메이드 협업 의류 컬렉션 구매 고객 대상 사은 행사도 진행한다.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6만원 상당의 TP5X 골프볼 세트를 증정, 추첨을 통해 60만원 상당의 캐디백, 30만원 상당의 보스턴백, 골프 기프트 세트 등을 증정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이마트, 협력사 ESG 경영 돕는다

동반성장위원회와 지원 협약

이마트는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위한 ‘2022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을 19일 동반성장위원회와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마트와 동반위는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개선(ESG)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들에 전문 교육을 하고 우수기업 인증도 도울 방침이다.

이마트는 협력 중소기업의 ESG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총 1억원 출연한다.

동반위는 업종·기업별 맞춤형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ESG 교육 및 역량 진단, 현장실사(컨설팅),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ESG 교육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

ESG 평가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협력 중소기업에는 동반위 명의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력 중소기업에는 금리 우대, 수출지원 서비스, 환경·에너지 기술지원 등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이마트가 운영하는 친환경인증 지원 등 동반성장프로그램 우선 선정 혜택도 주어진다.

이마트는 지난해 지속가능혁신센터 및 ESG추진사무국을 신설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협력사의 에너지 관리방안 상담을 무료로 하고 시설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